Informazione n.1

2023 년 6 월 9 일 가말돌리

친애하는 수녀님들, 초기 양성자, 스승예수의 벗, 그리고 바오로가족 협력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며 함께 합니다.
지난 6월 3일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얼굴을 물들인 초록빛 가말돌리 오아시스 피정의 집에서 애정을 담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로마 스승 예수 성당에서 개막 미사를 주례하신 안젤로 데도나티스 추기경님께서 '식별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고,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인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과 함께 저희를 환대하는 가말돌리 공동체에 도착했습니다.

6월 4일부터 7일까지 헬레나 보세띠 수녀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영신수련을 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받아들였고, 선포했다.»라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성경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여인들을 통해 주님을 따르고 선포하는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총회 공식 개회식은 6월 8일 오후, 호명을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으로 시작하였으며, 제10차 수도회 총회에 합법적인 참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우리는 복음서를 따라 행렬을 지어 총회 회의장으로 입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총회 규정과 일정을 승인하고, 총회 서기관과 다양한 위원회를 임명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도회 총회를 동반하게 될 촉진자 마리안 무르차 수녀님(Istituto Sacra Famiglia di Bordeaux)과 함께 수도회 총회의 영적 식별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촉진자 마리안 수녀님은 우리에게 «우리 창립자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 성령께서 가말돌리에 모인 수도회 회원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우리가 총회의 '공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각 공동체에 머무는 모든 수녀님들의 마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녀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총회 중인 우리와 더 깊은 친교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활화하도록 초대받은 식별은 각 회원들은 모두의 선과, 수도회의 생명력, 오늘날 수도회의 사명에 진정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적 표현이 풍부하면서도 단순한 전례 기도와 활기찬 순간들, 경청과 대화, 수도회의 다양한 현실을 서로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리굽쇠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라”음을 주셨으니 … 이제 우리가 멋진 교향곡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며,총회 여정을 볼 수 있는 총회 웹 사이트 http://www.pddm.org/10-capitolo-generale 방문을 초대합니다. 사진과 영상, 프로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 등이 있고, 그 외에 만남의 아름다움과 파견된 이의 기쁨을 재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스승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확신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활동을 알려줍니다.
동반을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홍보분과
마리아 데 라 파스 까르보나리, 엠마누엘라 비비아노 수녀